

2023년 1월 14-15일 주말 예배

새로운 습관 3. 경건의 습관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경건의 습관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8절

8.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베드로 후서 1장 8절(NIV)

8. For if you possess these qualities in increasing measure, they will keep you from being ineffective and unproductive in your knowledge of our Lord Jesus Christ.

왜?

오늘부터 구체적으로 5가지 습관에 대하여 나누게 됩니다. 챔버스는 [주님은 나의 최고봉]에서 'habit'라는 제목의 글로 다섯 개의 시리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묵상의 원 제목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Make a habit of having no habits"

‘습관을 가지지 않는 습관을 만들라’는 뜻입니다. 사실 이 제목 하나에 오늘 챔버스가 말하고자 하는 모든 요점이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작은 습관이 우상이 되는 것을 늘 경계해야 합니다.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거나 성경을 읽는 습관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챔버스의 말입니다.

“경건 습관의 본래 목적인 하나님과의 교제 대신에 서서히 습관 자체를 예배하기 시작하면서 결국 습관이 우상이 됩니다. 이때 하늘 아버지께서 얼마나 분노하실지 주의하십시오. ‘하나님, 지금은 기도하고 있으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어요. 이 시간은 하나님을 위해 정한 시간입니다.’”

기도가 얼마나 경건한 일인가요? 기도의 습관을 가지고 있다면 얼마나 경건한 사람일까요?

하지만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경건의 습관을 행하고 있다면?

기도하는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습관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무엇이든 우상 숭배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처럼 습관을 가졌다는 것을 의식하지 못하는 단계까지 훈련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좋은 습관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동행 하는데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좋은 습관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의도와 다른 결과들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 충열 장로님이 이런 이야기를 나눠 주셨네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는 머리가 맑고 주위가 조용한 시간을 활용해서 정신적 육체적으로 자신을 계발하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몇 시에 일어났는지에만 초점이 있고 그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 지에 대한 계획이 없다면 소용이 없습니다.

또 ‘시간을 정해 명상이나 운동하기’는 정신과 육체의 건강을 위함인데 몇 시간 동안 명상/운동했는지에만 초점이 있다면 그저 습관 그 자체일 것입니다.

짬짬이 독서하는 습관도 거기서 얻은 지식과 지혜보다 독서량의 다소와 그것을 자랑하려는 데만 관심이 있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경건의 습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어찌 보면 습관이라는 것은 그 내용을 담는 그릇이나 형식일 수 있습니다. 기도와 성경읽기도 하나의 행위일 뿐 그 안에 담겨야 할 하나님과의 은밀한 대화와 말씀을 듣는 것, 그리고 그것을 심령에 새기는 내면적인 행동이 없다면 그저 보기에 그리고 내세우기에 좋은 것일 뿐입니다. . .

다만 습관이라는 형식에 어떤 내용을 담느냐가 그 습관을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이며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마치 율법이라는 형식에 치우쳐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의도)을 간과하는 우를 범하는 것과 같습니다. 경건의 습관을 통해 주님의 성품을 보다 잘 알게 되고 자신의 내적인 충만을 이루어가는 것이 진정한 내용이자 목적인다고 믿습니다.

지난 해 [텅 빈 경건]이라는 책을 쓰면서 생각했던 것이 있습니다.

규칙을 아무리 많이 만들어도 그 규칙이 사람을 선하게 만들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법을 만들고 법으로 규제하려는 방법이 때로는 삶을 더 고달프게 만들기도 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그랬습니다. 이들은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 되기 위해 사소하고 세분화된 규정과 전통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율법을 만든 이유와 그것을 지키는 근본정신에는 무관심한 자들이 되어 버렸습니다.

[텅 빈 경건]에서 제가 소개했던 예화가 있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목사님이 교회에 새로 부임해서 새벽 예배를 인도하는데 이해할 수 없는 전통이 있었답니다. 늘 반주자가 선택한 곡을 불러야 했다는 것입니다. 이상한 생각이 들어 왜 예배 시간에 설교자가 찬송을 선택하지 못하는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교인들이 “오래전부터 내려오던 전통”이라고 말했답니다. 예전에 반주자가 없어서 실력이 좀 부족한 분에게 부탁했는데, 그분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담임 목사님이 그분이 연습한 곡만 불렀다는 겁니다. 현재 반주자는 분명 실력이 있습니다. 더 이상 그 전통을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그때 그 선한 의도로 반주자를 배려했던 마음은 사라져 버리고, 꼭 지켜야 하는 전통주의의 율법만 남은 것입니다. 반주자를 배려하는 마음에 만든 규칙이 그 마음은 사라지고 율법으로 남은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만든 작은 습관이 그 마음은 사라지고 우상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오래 전에 읽었던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의 책 [기도하십니까?]-에도 비슷한 구절이 있었습니다. *“기도에 대한 부담감은 기도를 더 어렵게 만듭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겠다고 결심하는 순간 기도는 우리에게 지루한 노동이 될 수 있습니다.

결심해야만 기도할 수 있다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있지 않다는 말이겠지요. 물론 결심을 통해 깊은 교제 속으로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현재 상태는

불완전하다는 말입니다. 무서운 것은 우리가 결심한 거룩한 습관이 정작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데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착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가 좋은 예입니다.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지 못한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외면한 이유가 거룩한 습관 때문은 아닐까요? 제사장에게는 자신이 해야 하는 거룩하고 경건한 일이 있는데, 하나님과 동행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레위인 역시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소명을 가지고 일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상실하고 나니 그저 '일'과 '노동'에 불과할 뿐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습관이 거룩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고 있지 않은 지를 말입니다.

우리 목상팀에서 대부분이 같은 고민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위해서 시작한 일들로 인해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거스를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거룩한 목상의 습관으로 인해, 그 시간을 지키지 못한 것으로 인해 마음에 화가 납니다.

누군가에게 짜증을 내기도 합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히려,

“네가 아무 것도 하지 않고 나와 함께 있으면 좋겠구나!”라고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거룩한 습관이 '악'이 아니라, 거룩한 습관의 노예가 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가족 간의 관계에서도, 교회에서 하는 봉사에서도. . .)

본문 속으로

오늘 본문 말씀은 지난 두 주 동안 나누었던 베드로후서 1장 5-7절 말씀과 연속선상에서 이해를 해야 합니다.

5.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에 덕을, 덕에 지식을,

6. 지식에 절제를, 절제에 인내를, 인내에 경건을,

7. 경건에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믿음의 덕을 세우는 일을 해야 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있는데 덕이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의 일입니다. 지휘관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삶과 행동에 덕이 없습니다.

자신의 믿음에 못 미치는 사람이나, 자신의 상식에 맞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인격적으로 모독이 되는 말을 서슴지 않고 합니다. 사실 목사인 제가 얼굴이 화끈거릴 때가 참 많았습니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우리의 마음속에는 늘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고 싶은 유혹들이 참 가까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조금만 주의를 게을리 해도, 나의 믿음을 드러냄으로 인해

누군가를 힘들게 하는 일들이 많으니 말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러한 일들이 ‘훈련’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잘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덕’에는 지식을 갖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리분별을 하지 못하고 덕을 베푸는 사람들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곤혹을 치르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군가를 돕는 일, 덕을 베푸는 일이 귀하기는 하지만, 그로 인해 누군가가 고통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참 힘든 일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얼마든지 죄를 범한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죄를 용인함으로 인해 누군가에게 더 큰 상처와 아픔을 주고 있다면 그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특히 성추행과 성폭행과 같은 문제들이죠, 잘못을 저지른 사람에게 기회를 주고, 용서해주고 싶지만, 피해를 당한 사람에게 그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생각해 본다면 행동이 달라지지 않을까요?

지난 해 6월 공군에서 성추행을 당한 여자 중사가 자살을 한 일이 있었습니다.

가만히 보면 몇 달 동안 피해를 당한 여성을 회유하기도 하고, 그 일을 덮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일이 밝혀졌지만 부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피해와 불이익을 당하게 될 터이니 용서하고 덮어주자는 일이었겠죠. 누군가는 덕을 베푼다고 한 일일지 모르지만, 잘못된 지식입니다. 덕에는 올바른 지식이 따라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식에는 늘 절제가 있어야 합니다.

지식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절제되지 못한 지식은 ‘오만과 편견’으로 나타납니다.

지식의 가장 큰 위험은 누군가를 멸시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지식을 드러내지 않으려는 마음이야말로 훈련이 필요한 일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지식의 부요함’을 생각할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 얼마나 단편적이고 위험한 것인지를 늘 생각해야 합니다.

절제에 인내를, 그리고 인내에 경건의 훈련이 왜 필요한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모두 경험하는 것이지만 순간적 ‘절제’를 성공적으로 만드는 것은 그 절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NIV 성경에 보면 ‘절제’를 ‘self-control’로, 그리고 ‘인내’를 ‘perseverance’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아주 정확한 표현입니다.

자연적인 욕망을 가진 인간이 ‘이성적 인간’이 되기 위해 누구나 생각하는 것이 ‘절제’가 아닐까요? 신앙적인 관점에서 ‘절제’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생각하는 마음이고, 그러한 마음을 따라 자신의 욕망을 억제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절제’를 얼마나 지속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인격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절제’를 인격으로 만들어가는 ‘인내’가 필수 요소인 것입니다.

‘인내’를 통해 ‘절제’가 습관이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 [하나님의 숨결]을 녹화하면서 제 마음 속에 떠오른 생각을 나누었습니다.

그리스도로 충만한 사람이 내리는 결정은 절대로 잘못되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결국 우리는 삶에서 계속되는 ‘선택의 순간’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선택이 성령님의 인도를 따르지 않는다면 정욕적이고 자기중심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자기 절제를 위해 ‘고행’이라는 수단을 사용하는 사람들을 종종 목격합니다.

‘수도’라는 이름으로 일정부분 격리된 곳에서 자신의 욕망을 제어하는 사람들을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참아내는 훈련’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인내’에 ‘경건에 훈련’을 더하라고 말씀합니다.

‘경건’이란 무엇일까요?

금세 우리 머리에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참 경건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믿음의 선배와 왠지 ‘경건한 척’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경건함’의 기준이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적어도 제가 생각하는 경건함의 표준은 ‘겸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이야말로 진정 경건한 삶을 살아갈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전형적인 ‘경건한 척, 겸손한 척’의 전형이 있습니다.

늘 말을 할 때마다 겸손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겸손한 자리에 있으려고 애쓰는 것이 보입니다. 그런데 보면 볼수록 그 겸손이 가식처럼 느껴지고, 겸손하려면 할수록 자신을 높이는 거짓됨이 느껴집니다.

늘 ‘겸손’이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아도 겸손해지지 않는 이유는 그 겸손의 행위 가운데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참 경건하게 살아가고, 살아가려고 애쓰는데도 그 경건이 거짓처럼 느껴지는 이유는 ‘경건할수록 드러나는 자기 교만’ 때문입니다.

NIV 성경에서 ‘경건’을 ‘godliness’라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를 검색했더니 이렇게 의미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The New Testament word for godliness, in its original meaning, conveys the idea of it, a personal attitude toward God that results in actions that are pleasing to him. This personal attitude toward God is what we call devotion to God. But it is always devotion in action

경건은 하나님께 대한 ‘개인적 태도’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그러한 태도의 결과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헌신’이 빠져있다면 이러한 경건은 거짓이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오늘 말씀의 제목인 ‘경건의 습관도 우상이 될 수 있다’는 말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상’이란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대신하는 모든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습관을 만들기 위해 절제하지만, 그 절제가 자신의 욕망을 이루는 수단이 될 때,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을 때 ‘경건은 우상’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신을 절제하며 인내하며 살아가는 삶 가운데 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또 오늘 말씀 가운데 중요한 것이 다음의 덕을 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헌신에 ‘형제 우애’를 더하라는 말입니다.

제가 설교하면서 몇 번 이야기 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경건이 조금만 방심하면 ‘독선’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사실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을 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 마음이 참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만’을 생각한다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형제와 자매들을 생각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온전하다고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다룰 때마다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고르반’이라는 것이죠.

마가복음 7장 11절에 나오는 말입니다.

//.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즉, 하나님께 구별한다는 경건한 행동이 사람에 대한 의무를 해제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진정한 경건의 삶을 사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헌신된 태도에 형제에 대한 우애를 더해야 한다는 것이 말입니다.

가끔 목회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은 함께 사역하는 사람과 그렇게 싸우면서, 어떻게 저렇게 헌신적으로 섬기는가?’

설교자인 저에게, 목회자인 저에게 늘 그런 부담이 있습니다.

‘저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어떻게 사랑에 대한 설교를 할 수 있을지, ‘저 사람’을 품어주지 못하면서 어떻게 목양할 수 있을지. . .

그래서 참된 경건의 습관을 위해 ‘형제 우애’를 더하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참 어려운 단어를 하나 더하고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형제와 우애하는 것이 참 힘들어서 노력하는 우리들에게 마지막 ‘방점’을 하나 콕 찍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한 우애가 의무가 되지 않도록 사랑해야 하지 않겠니? 라고 말입니다.

이 ‘더하기’의 여정을 오면서 마지막 단어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경건의 습관에 이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보니 하나님과 관계되지 않은 경건이란 애당초 불가능한 것입니다.

자신을 지키는 강력한 무기 ‘경건’

결혼 주례를 할 때면, 신랑과 신부에게 주례자로서 주는 선물이 있습니다.

‘커플 웨딩성경’이 그것인데,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결혼식을 마치고 신혼여행을 갈 때 꼭 성경을 가져가세요. 그리고 여행 가방을 풀 때,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이 성경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보는 순간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도록 말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영성’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가정을 깨는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가 ‘도덕성의 상실’인데, 도덕성을 붙잡아 주는 것이 영성입니다. 결국 영성이 도덕성을 그리고 도덕성이 가정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경건의 습관이 필요할까요?

경건의 습관이 우리의 삶을 붙잡아주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인 베드로후서는 ‘베드로전서’와는 조금 차이가 있는 서신입니다.

베드로서가 작성되던 때는, 교회 안에 이단들이 많이 들어와 믿음을 흔드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베드로전서가 단순히 ‘환난과 핍박에 대한 경고’가 주를 이루었다면,

베드로후서에서는 ‘거짓 선지자들의 이단적 가르침에 대한 경고’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은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온갖 불법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불법과 이단으로부터 자신을 구하는 안전장치가 ‘습관’입니다.

‘습관’이란 애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행할 수 있을 때까지 훈련하는 것입니다.

신학교시절 헬라어를 배울 때 교수님이 하시던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헬라어는 어미 변화가 굉장히 심한 언어인데, 독일어를 배울 때

“der des dem den die der der die...라고 외웠던 것처럼 오 에이스 에이 오멘 에테 우시...라는 어미 변화를 외워야 한다. 누가 지나가다 툭 치면 어미가 나올 수 있도록. . .”

습관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를 영적으로 흔드는 이 시대에서 우리를 붙잡아 주는 것입니다.

있다. 우리의 삶에서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행동이 습관입니다.

‘버릇’이 아닌 ‘습관’이 되기 위해서는 그 행동이 우리를 경건으로 인도해야 합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는 습관을 예배의 대상으로 삼지 않기 위해 이것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만일 당신이 자신의 거룩을 의식한다면, 이는 당신에게 부족함이 있고 하나님과 거리가 있으며 그분과 진실한 관계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삶은 늘 우리에게 가장 좋은 모범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지나시는 동안 늘 이 점에 초점을 맞추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하늘 아버지와 하나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됨'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의 '기준점'이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것이 '평안'입니다.
 하나님과 평안한 관계 속에서 하는 행동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만일 평안하지 않다면,
 하나님을 우리 안에 주인으로 모셔야 합니다.

A. W. 토저는 [습관적 신앙에서 벗어나라]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습관적인 신앙생활로부터 어떻게 탈출합니까? 하나님께 여러분 자신을 송두리째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온전히 맡김으로써 습관적인 상태에서 벗어나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삶을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의 감미로운 매력을
 알도록 노력하십시오.

적어도 우리들에게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온전히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우리의 삶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거룩을 의식하지 않아도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있는 삶이 분명하다면, 올바른 습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굳이 우리가 의식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행하는 습관이 될 때, 우리는 더 이상 습관을 예배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묵상 팀에서 나눠주었던 이야기를 우리들의 삶에 적용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생각해 본 '신앙을 흔드는 위험한 습관'은 아래와 같다.

- 예배를 의식화하는 습관 :

'오직' 나의 평안을 위해 이 의식을 하지 않으면 일주일의 찢찢하고 불안하다. 예배 시간에 졸더라도,
 지각을 하더라도, 감기가 심해서 전염이 우려되는 상황일지라도 개의치 않고 예배에 참석하는 일.
 (우리가 흔히 '죽어도'라는 말을 종종합니다. "죽어도 이 자리를 지키고, 이 시간을 지키고. . .")
 라는 말들이 혹시라도 사역을 우상화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 보셨나요?)

- 기도를 형식화하는 습관 : 형식적으로라도 기도는 반드시 해야 한다는 생각. 이 부분에서 전에
 담임목사님이 추천하신 영화 '게임체인저'를 보면 주인공의 애인이 밥상에서 기도할 때 중언부언
 하지 않고 "하나님께 필요한 사람이 되게 해 주세요."라는 한 마디로 끝낸다. 얼마나 간결하고
 명징한 기도인가. 그에 반해 우리는? "살아계셔서 우리는 사랑하시는 아버지!"로 시작하는,
 장황하지만 내용 없는 기도를 반복하는 일 (혹시 내가 정해놓은 기도시간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경우들은 없었나요? 기도는 시간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인데 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멀어지는 기도의 습관이 있다면 얼마나 무서운 일일까요?)

- 훈련을 경력화·도구화하는 습관 : 사람들에게 과시하거나 인정받기 위해 교회에서 받은 교육훈련
 을 도구 삼아 자랑하거나 더 높은 직급으로 올라가기 위해 할 수 없이 훈련을 받았지만 그 내용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이해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는 일 (훈련이라는 것이 때로 '가시적인 효과'에

머물 때가 많습니다. 물론 이러한 훈련을 통해 어느 정도 영적 성장을 가늠해 볼 수는 있겠지만, 훈련의 양으로 누군가를 판단하거나, 내가 받은 훈련으로 누군가를 비판하고 있다면, 그 역시 우상으로 전략해 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 사역을 댓가와 훈장화하는 습관 : 교회에서, 특히 교역자님들께 인정받고 싶어서 나의 사역을 자꾸 드러내고자 하는 일. 주차장 봉사도 지하에서 차량정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잘 보이는 교회 입구만을 고집한다든지, 찬양팀 봉사도 음향을 담당하는 것보다는 싱어로 나서서 활동하기를 고집한다든지 하는 일 (가만히 생각해보면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최고로 생각하며 예배를 방해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맡고 있는 순서를 지키는 일이 예배보다 중요하게 생각될 때, 사역이 우상화 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 교제를 사업화하는 습관 : 공동체 모임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서로를 사랑하는 일 보다 비즈니스를 하기 위한 또 다른 영업장으로 생각하고 이해타산을 앞세워 교제에 참여하는 사람, 한마디로 ‘간 보러 와서 간만 보고 가는 사람’을 공동체에서 만난 적이 있다. 그런 모습들에 마음이 어려워 소그룹 모임 참여에는 아직도 마음이 잘 열리지 않는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배보다 부수적인 일들이 더 중요해지지 시작합니다. 혹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예배하고, 사역을 위해 어떤 사람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 지고 있다면.)

- 말씀을 공식화·기복화하는 습관 : 설교 말씀을 내 중심으로 재해석하여 전체적인 내용은 이해하지 않은 채 나에게 부합하는 내용만 골라서 임의로 해석하고 마치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진리인 양 성경도 읽지 않으면서 설교말씀만 붙잡는 일. (사탄과 광야에서 주님을 유혹할 때 성경말씀을 인용했던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나를 위해 그 말씀을 이용하기 시작할 때, 말씀도 우리에게 우상이 됩니다.)